화웨이, 앞으로 안드로이드 사용 못 한다

외신 "구글, 거래 중단…지메일·유튜브 등 금지"
자체 OS로 '역부족'… 스마트폰 수출에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통신장비 금지령이 발동된 가운데 미국 IT 대기업 구글이 '반화웨이' 캠페인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앞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지메일 등 인기 앱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향후 수출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위기는 삼성전자에겐 기회가 될 전망이다. 화웨이는 애플을 꺾고 글로벌 2위로 자리매김한 이후 호시탐탐 삼성의 1위 자리를 넘봐왔다.

현지시각 기준 1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구글이 화웨이에 오픈소스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전, 기술지원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 지메일, 유튜브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자체 OS가 갖춰져 있다며 이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홍멍'이라고 불리는 화웨이의 OS는 리눅스 기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처드 위 소비자부문 CEO는 과거 인터뷰에서 "플랜B를 가동할 준비가 됐다"며 이를 언급한 바 있다. '홍멍'은 현재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플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OS가 구글이 만든 기존 생태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게다가 유튜브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화웨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위기는 삼성전자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화웨이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애플을 꺾고 2위에 매김 한 이후론 선두 자리를 추격당하고 있다. 리처드 위 CEO는 올해 초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르면 올해 삼성전자를 제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격차도 급격히 좁혀진 상태에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과 화웨이의 점유율은 각각 21.7%, 17.9%로 양사의 격차는 3.8%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1분기 격차(11.2%)와 비교하면 1년 만에 7%p 이상 좁혀진 셈이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활약했던 유럽, 아프리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50%에 가까운 성장률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판세는 구글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급변하게 됐다. 화웨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면 상대적으로 삼성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특히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 기기 판매량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보통신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미국 상무부도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상무부 명단에 오른 외국 업체는 미국 회사와 거래할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슬기 기자 clemency@

킬로그램·암페어 단위 바뀐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130년 만에 정의가 새롭게 바뀐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kg) 등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도량형총회는 지난해 11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 단위에 대해 상수(변하지 않는 수)를 활용, 다시 정의했다.

그동안 질량은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로 1kg의 국제 기준을 정했으나 그 사이 원기 무게가 최대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가벼워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따라 킬로그램을 다시 정의한 것이다. /김경석 기자 nicepen@

aT, 베트남 호찌민 지사 개소

현지 소비자 트렌드 반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아세안 지역 핵심 전략 국가인 베트남 호찌민에 지사를 설치하고 17일 개소식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T는 "시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시장을 일본에 이어 농식품 수출 제2의 주력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2015년 하노이 지사를 열었다"며 "지난해 8월에는 하노이 지사를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총괄하는 아세안 지역본부로 승격시켰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대아세안 교역의 43%를 차지하는 아세안 1위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올 3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1억6천200만 달러(약 1천933억원)어치의 농식품을 수출했다. 이는 전체 수출국 가운데 4위 규모다.

aT는 이밖에 베트남 축구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딸기, 배, 사과 등 신선 과채류를 홍보하는 광고와 화보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병호 aT 사장은 "베트남 호치민지사의 개소를 계기로 현지 소비자의 소비패턴, 마케팅 트렌드 등을 면밀히 반영해 수출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병호 aT 사장(왼쪽 여섯번째)과 임재훈 호치민 총영사(일곱 번째)가 aT 베트남 호치민지사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T 제공

'카카오 T 블랙' 요금할인 이벤트
6월 말까지 매주 월-화 진행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주환)가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T 블랙'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해피블랙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피블랙데이'는 6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화요일 오전 11시 59분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되며, 해당 시간 내 카카오 T 블랙을 호출하는 고객에게는 30% 요금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호출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예약 호출은 적용되지 않고, 카카오 T 앱에서 실시간 호출 시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카카오 T 블랙 서비스 지역인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진행된다.

기업 전용 서비스인 '카카오 T 비즈니스'에 가입한 기업 회원도 이벤트 기간에 카카오 T 블랙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회원 임직원이 카카오 T 블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되어 하차 시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차은혜 기자 asia1@

"국내 에너지전환 수준 아직 '미미하다'"

"속도 더 높여야" 한 목소리…수요관리 중요성도 제기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로 전 세계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이 한창인 가운데 에너지전환에 있어 국내 수준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에너지전환속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날 종로구 패스트파이브에서 개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을 통해 본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주소: 진단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3차 에기본안에서 제시된 재생에너지 비중은 미국 주요 주나 유럽 국가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럼은 "2040~2050년 미국 주요 주와 유럽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0~100%로 추정된다"며 "한국도 에너지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럽 등에 비해 더딘 현재 한국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최근 벤츠나 애플 등 세계 기업들의 경우 본사나 자체 공장은 물론 공급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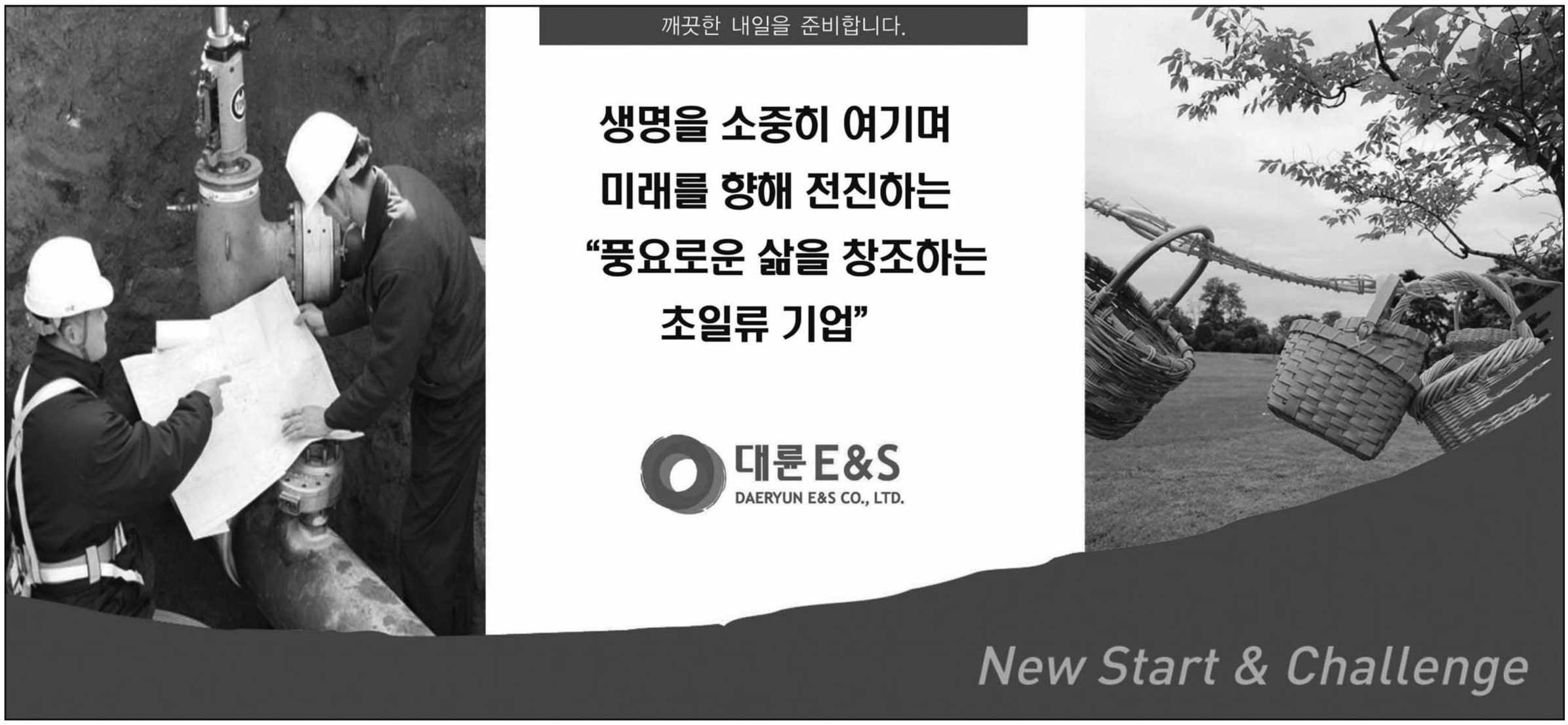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한국 전력이 독점하는 한국의 전력산업구조 특성상 한국 기업은 원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이 늦어지면 제조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발전원 구성 변화가 아닌 일자리 창출 등 더 많은 가치를 포함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환경과 안전 차원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 창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전환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 에너지원을 마련하며 후손에 대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고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만큼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왔다.

홍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화두가 되며 원전, 석탄화력, 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에 관심이 많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수요관리"라며 "결국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한국 태양광발전학회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9개 주가 클린에너지 100% 목표를 확정했거나 준비 중"이며 "영국도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설하기로 했던 것을 해상풍력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독일은 연말까지 탄소세 도입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clemency@